

한국사 기출해설

해설 - 설민석 교수(단꿈교육)

1.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 ②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 ③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와 사회 분화가 나타났다.
- ④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정답 ④

청동기 시대

(선사 시대)

정답 찾기 ④ 청동기 시대에는 여전히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여주 혼암리, 부여 송국리 등에서 발견되는 탄화미(불에 탄 쌀)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오답 피하기 ①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민무늬 토기가 유행하였으며, 기본적인 모형으로는 밑바닥이 평평한 원통형이나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가지무늬 토기 등이 있다.

②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서 한반도 내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한국식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형태가 변하였다.

③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분배하고 개인이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유화한 생산물의 차이에 따라 빈부 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나타났다.

2.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 (나)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① (가)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 ②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 ③ (나)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나)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 풍습과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2. 정답 ④

옥저와 동예

(여러 나라의 성장)

제시된 자료 (가)는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의 내용을 통하여 ‘옥저’에 관한 자료임을 알 수 있으며, (나)는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사를 지낸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동예’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동예는 산천을 중요시해서 각 부족의 생활권을 엄격히 구분하였는데, 이를 보여주는 제도로 책화가 있었다. 책화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할 시 노비, 소, 말 등으로 변상하는 폐쇄적인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남성이 여성의 집 한쪽에 마련된 조그만 집(서옥)에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훗날 자녀가 성장하면 남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② 대가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인 제가 회의는 고구려의 귀족 회의 기구이다. 고구려는 감옥이 없으며 중대한 범죄자가 있을 경우 제가 회의를 열어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③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명의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四出道)를 맡아 다스리던 국가는 부여이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졸본성에서 (가)으로 도움을 읊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나)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 중엽 (다) 때에는 위(魏) 지배하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즉 중앙에 6개의 좌평(佐平)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료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3성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부족 집단인 6촌도 이 무렵 행정적인 6부로 개편되었다.

- ①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지증왕
- ②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내물왕
- ③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내물왕
- ④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지증왕

3. 정답 ③

삼국의 발전 과정

(고대 - 정치사)

정답 찾기 (가) 고구려는 B.C. 37년 부여 이주민 출신 주몽이 졸본성 인근에서 건국되었고, 이후 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나) 이후 2세기 고국천왕 때 부족적인 성격의 5부(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절노부)를 행정적인 5부(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로 개편하는 중앙 집권화 과정을 거쳤다.

(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낙랑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이왕은 중앙에 6좌평을 두고 16관등제를 마련하였으며 백관의 공복을 자색, 비색, 청색으로 제정하였다.

(라) 신라는 박, 석, 김 3성이 교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4세기 내물 마립간(내물왕) 때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고 지배자의 칭호도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에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오답 피하기 (가) 평양성은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로 5세기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천도하였다.

(나) 고국원왕은 4세기 중반 고구려의 왕으로 전연 모용황의 공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선왕인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되기도 하였다. 이후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다)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왕으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근초고왕은 마한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까지 진출하였고, 낙동강 유역의 가야까지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 발전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서와 산둥,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도 진출하였다.

(라) 지증왕은 6세기 신라의 왕으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배자의 칭호도 '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4. 신라 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8세기 후반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 ② 당에서 돌아온 6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다.
- ③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④ 견훤은 완산주에 도움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송악에 도움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4. 정답 ②

신라 하대의 모습

(고대 - 정치사)

정답 찾기 ②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 등을 지어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이 9세기 후반 진성 여왕 때 신라로 귀국하여 정치 개혁과 관련된 시무 10여 조를 올렸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통일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으로 피살되면서 무열계의 왕위 계승이 끝나고 내물계 김양상이 즉위하였다(선덕왕). 선덕왕 때부터를 통일 신라 하대로 보며 하대 150여 년간 신라의 왕이 20명이 바뀔 정도로 진골 귀족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③ 신라 하대에는 정치 기강 문란과 지배층의 사치로 인하여 농민에 대한 수탈이 극심해지면서 농민들은 중앙 정부에 큰 불만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진성 여왕 때 극에 달하였고 결국 889년 사벌주(상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봉기인 원종·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④ 신라 군관 출신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전주)를 도움으로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다음 해인 901년에는 신라 왕족 출신 궁예가 송악(개성)에 도움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5.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하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① 적극적인 북진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으로는 원산만에서 영흥(永興)까지 확대되었다.

②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綠色)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③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④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5. 정답 ③

고려 성종 때의 상황

(고려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제시한 ‘시무 28조’이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를 진흥시키고 불교를 억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답 찾기 ③ 고려 성종은 중앙의 문·무관 귀족에게는 문산계를 지급하였고, 향리나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는 무산계를 지급하여 중앙과 지방의 지배층을 구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며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적극적인 북진정책으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였던 국경선을 청천강에서 영흥만 이남으로 확장하였다.

② 광종은 백관의 공복을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綠色)의 4색 공복으로 제정하여 관료의 위계질서를 확립시켰다.

④ 안정적인 중앙 집권 운영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반을 두고 나뉜 선종을 통합하고 교종을 병행시킬 필요를 느낀 광종은 교종인 균여의 화엄 사상과 선종의 법안종을 유입해서 천태학을 통하여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6.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②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지금의 서울)이 설치되었다.

③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 한 한편,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④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6. 정답 ③

고려 시대 지방 행정 조직

(고려 - 정치사)

정답 찾기 ③ 고려 태조 왕건 때 지방 호족 세력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들을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출신지의 부호장 이하 관직 등에 사무를 일임하였고,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유력자의 자제를 개경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기인으로 뽑힌 호족의 자제들은 출신지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고려 현종 때 전국을 크게 경기와 3도 양계로 나누었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두었다.

- ② 고려 시대에는 풍수지리설과 관련하여 3개의 경(京)이 존재하였다. 본래 3경은 개경(개성), 서경(평양), 동경(경주)였는데, 문종 때 동경 대신 남경(양주, 지금의 서울)을 포함시켰다.
- ④ 북방의 외적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군사적 특수 행정 구역인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고 군사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병마사의 임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는 5도에 파견된 안찰사와 같았다.

7.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 ㉢ 『상정고금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7. 정답 ①

13세기 고려의 상황

(고려 - 통합형)

정답 찾기 ㄷ. 고려 시대 최우가 집권하던 시기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인 1234년에 금속활자로 의례서인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하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는 1236년에 강화도에는 대장도감, 진주와 남해에 각각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재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여 1251년에 완성하였다. 재조대장경은 경판이 팔만장이 넘어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ㄱ. 고려 원종은 1270년에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여 수도를 강화에서 다시 개경으로 옮기려하자 이에 반발하여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를 거쳐 항전하였다.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항전을 하던 중 진도에서 배중손이 전사하자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끝까지 항전하였다.

ㄹ. 몽골과의 강화 체결 이후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승려 일연은 고려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자 자주 국가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충렬왕 때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8. 고려 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 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 ②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걸작이다.
- ③ 서예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다.
- ④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8. 정답 ②

고려 시대의 예술

(고려 - 문화사)

정답 찾기 ②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높이가 18.75m에 달하는 대형 석불이다. 고려 시대의 불상 중에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불상은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고려 후기에 나타난 건축 양식인 다포 양식은 기둥 위를 비롯하여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짜 올린 방식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양식이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이 있다.

③ 고려 전기에는 중국 동진의 왕희지체와 당나라의 구양순체가 유행하였으며, 후기에는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④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특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려 시대 불화는 화려함과 정교함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채를 진하게 사용하였다.

9. 고려의 대외 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
- ②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③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 ④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9. 정답 ④

고려의 대외 항쟁

(고려 - 정치사)

정답 찾기 ④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한 것은 몽골의 침입 때가 아니라 홍건적의 침입 때이다.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는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2세기 초 여진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고려에 귀순한 여진의 부락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고려는 세 차례에 걸쳐 토벌군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병 위주의 고려군이 기병 위주의 여진에게 계속해서 패퇴하자 기병의 필요성을 느낀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하여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병)으로 편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그 지역에 9개의 성(동북 9성)을 쌓았다.

② 몽골의 침입 당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과 경주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소실되었다.

③ 고려 원종이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려 하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강화도, 진도를 거쳐 항전하였고 진도에서 배중손이 전사한 이후에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항전하였다. 그러나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3년 간의 항쟁이 끝났다.

10. 다음 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말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릿발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메고
대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하노라

「호기가(豪氣歌)」

- ① 침입하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하였다.
- ②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하였다.
- ③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섬멸하였다.
- ④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10. 정답 ①

최영

(고려 - 인물사)

제시된 자료는 고려 말 무신이었던 최영이 쓴 시조 “호기가”이다. 최영은 이 시조를 통하여 늠름한 기상과 무인으로써의 기개를 한껏 펼치고자 하였다.

정답 찾기 ① 1376년(우왕 2)에 왜구가 고려를 공격하자 최영은 홍산(지금의 부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최무선을 중심으로 우왕 때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 및 화포를 제조하였다. 화통도감의 설치로 고려의 화약 제조 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화포방사군 등을 제작하였고, 이후 최무선이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된다.

③ 1380년(우왕 6)에 왜구가 침입하자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남원(황산)에 가 적장 아지발도(아지바투)를 사살하고 수 많은 왜구를 도륙하였다.

④ 1383년(우왕 9) 남해 관음포에서 정지의 활약으로 왜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정지의 관음포 전투는 고려 시대 왜구의 세력을 크게 꺾은 대표적인 전투이다.

11.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도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홀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11. 정답 ②

조선의 토지 제도

(조선 - 경제사)

정답 찾기 ② 1556년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관리가 복무 대가로 지급받았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관리들은 현직에 있을 때 백성의 토지를 겸병하거나 수조지를 중심으로 사유지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다. 지주 전호제의 확산은 소작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 관급제는 수조권자의 횡포(과도한 수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고, 해당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③ 1391년 공양왕 때 제정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와 일정한 직책이 없는 대기 발령자를 막론하고 등급에 따라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또한 수신전, 홀양전 등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 관직이 없더라도 그 가족에 해당하면 수조권을 받을 수 있었다. 과전의 세습 등으로 인해 현직 관리의 복무 대가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수신전, 홀양전 등 세습되는 토지의 분급을 폐지하였다.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할 경우 관료의 아내가 수절하는 조건으로 수신전을 지급하였고 해당 관료의 부인도 세상을 떠나 어린 자식만 남을 경우 이들의 생활을 위해 홀양전을 지급하였다.

12.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과(대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 ② 문과(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뉘었다.
- ③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로였다.
- ④ 소과 복시의 합격자 수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12. 정답 ④

조선의 과거 제도

(조선 - 정치사)

정답 찾기 ④ 소과에는 초시와 복시가 있다. 초시에서는 각 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약 700명을 선발하였고 복시에서는 성적 순으로 100명을 선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대과 복시에서는 성적순으로 33명을 선발하였고 합격증인 홍패를 지급하였다.

②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왕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전시에서 최종 합격한 33명은 지역과 무관하게 성적에 따라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나뉘었다.

③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쳤으며 최종 28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무과의 합격자는 합격증인 홍패를 지급받았다.

13.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
|-------------------------------------|
| ㉠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 ㉡ 군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 ㉢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
| ㉣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3. 정답 ②

임진왜란

(조선 - 정치사)

정답 찾기 ㉡. 1592년 4월 14일 부산진에서 군민들이 부산진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부산진 전투).

㉠. 1592년 4월 28일 신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왜군에 패배하였다(충주 탄금대 전투).

㉢.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군을 상대로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옥포 해전).

㉣. 1592년 6월에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 참고로 정확한 날짜는 기록물에 따라 다르다.

14.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과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湖洛)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조 때에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내세웠다.

②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 있었다.

③ 이간, 김창협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내세웠다.

性同論)’을 주장하였다.

④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사상으로 이어졌다.

14. 정답 ②

호락논쟁

(조선 - 문화사)

정답 찾기 ② 호론은 주장에는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고 명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 명분론이 깔려 있었다. 또한 호론은 성인과 일반 사람의 구분을 강조하며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지주 전호제를 옹호하였고 이후 개항기 때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호론은 충청도를 지역적 기반으로 한원진, 권상하, 윤봉구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며 기(氣)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③ 서울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은 이간, 김창협 등은 인간과 사물의 본선이 서로 같다는 이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면서 이(理)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④ 낙론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인정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훗날 북학파와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15. 다음 인조반정 이후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삼학사(三學士)가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 ㉡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 ㉣ 후금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15. 정답 ②

인조반정 이후의 상황

(조선 - 정치사)

정답 찾기 ㄴ. 1624년 인조 때 인종반정 이후 큰 공을 세운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이괄의 난).

ㄷ.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은 명으로부터 반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고 명에서 충성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

여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1627년 조선을 침략하였다(정묘호란).

ㄴ. 후금은 만주와 내몽골을 차지한 뒤, 1636년 국호를 청(淸)으로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함과 동시에 군신 관계를 강요하였다.

ㄷ.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청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의 결과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고 소현 세자, 봉림 대군과 대표적인 척화론자였던 김상헌과 삼학사(윤집, 오달제, 홍익한) 등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청에 끌려갔다. 삼학사는 청의 갖가지 회유와 고문에도 절조를 굳히지 않아 결국 1937년 3월에 모두 처형되었다.

16.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으로 삼겠으며, 태산(泰山)을 깎아 내려 평지(平地)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南大門)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매천야록』

- ①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
- ③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고, 광화문 앞의 육조 거리 등 한양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였다.
- ④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6. 정답 ④

홍선 대원군의 정책

(근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홍선 대원군이 노론의 세력을 억제하고 남인을 등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당 문제는 홍선 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④ 홍선 대원군은 세도 가문(노론 세력) 권력의 중심이었던 비변사를 축소하여 국가 방위를 위한 군국사무만 담당하게 하고, 국정 의결권은 의정부에 이관하였다. 이후 삼군부 제도를 부활하여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비변사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신종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홍선 대원군은 대보단에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동묘를 철폐하였으며 봉당의 근거지이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철폐하였다.

② 홍선 대원군은 기존에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고, 이후 삼군부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③ 홍선 대원군은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17.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①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 ②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 ③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 ④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17. 정답 ④

대한제국

(근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고종이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대한 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③ 대한국 국제는 대한 제국의 헌법으로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두 권한을 집중시켰다.

오답 피하기 ① 대한 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황제권의 무한함을 규정하였다.

②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경운궁은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직후 덕수궁으로 개칭된다.

④ 대한 제국은 입헌 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 협회의 정치 개혁 운동을 황국 협회를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18.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는가?

- ㉠ 헌정연구회 ㉡ 대한협회 ㉢ 보안회 ㉣ 대한자강회

① ㉠, ㉡

② ㉢, ㉣

③ ㉠, ㉡

④ ㉢, ㉣

18. 정답 ③

애국 계몽 운동 단체

(근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자강의 방법으로’ 등을 통해 제시된 자료는 대한 자강회 취지문임을 알 수 있다. 대한 자강회는 1906년에 조직되었고 1907년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정답 찾기 ㄱ. 헌정 연구회는 1905년 5월 이준, 양한묵 등이 조직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이며 ㄴ. 1904년에 조직된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오답 피하기 ㄴ. 대한협회는 1907년 11월에 대한 자강회가 일제 통감부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뒤 조직되었다.

19.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침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 ②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 행정에 간여하였다.
- ③ 우리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④ 일본은 광산·어장·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19. 정답 ②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일제 강점기 - 정치사)

정답 찾기 ② 일제는 총독부의 자문 기관으로서,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은 3·1 운동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제는 1912년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를 약탈하고 은결을 찾아내 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친일 지주화·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일제는 1910년에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의 민족 기업 성장을 억제하려 하였다.

④ 일본은 1911년 산림령과 어업령, 1914년 지세령, 1915년 광업령, 1918년 임야조사령을 통하여 경제적인 수탈을 하였다.

20.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 ㉢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 ㉣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20. 정답 ②

광복 직후의 상황

(현대 - 정치사)

정답 찾기 ㉠.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3국의 대표는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1944년 8월 여운형과 조동호 등의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의 패망을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좌익과 우익이 참여한 비밀결사로 조선 독립 동맹과 연합하였고, 조선 의용군과 협동 작전을 계획하였다.

㉢. 1945년 7월 미국의 트루먼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하였다.

㉣. 1945년 12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 한반도 문제를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4개국(미·영·중·소)의 한반도 신탁통치를 포함한 4개 조항의 결의서가 발표되었다.